

나. 인문계열

1. 출제문

1. 아래의 제시문 (나), (다), (라), (마)에는, (가)에 나타나 있는 과학발전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인문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논거가 들어 있다. 이 논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과학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000자±100자, 배점 80점)

(가) 18세기와 19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자연에 관한 여러 불변의 법칙들-뉴턴의 운동법칙, 중력의 법칙, 보일의 법칙, 진화의 법칙 등등-이 발견되어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과학자의 직무는 관찰된 사실로부터 귀납적인 추론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불변의 법칙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확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법칙’이라는 용어는 구름의 꼬리처럼 영광스러운 흔적을 길게 남기면서 갈릴레이와 뉴턴에게서 전해내려 왔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연구가 과학적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였고, 자기들도 과학에서와 똑같은 객관적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다. 예컨대 버클은 그의 『문명사』 결론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이라는 영광스런 원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나)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리적 인접 단위이며 적대적·우호적 관계를 다 같이 포함한 역사적 경험을 긴밀하게 공유하는 장임은 분명하다……월남은 지리적으로는 몽고, 티베트처럼 주변에 위치하였으나 ‘동아시아 질서’에의 참여 면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여 왔다. 오늘날 적지 않은 역사서가 동아시아사를 논할 때 월남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월남을 동아시아의 틀 속에 넣어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동남아시아’는 정치적·문화적 실체가 아닌 2차대전 후 편의적 개념으로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연대의 실효를 거두어가고 있는 새로 태동하고 있는 질서인데 월남은 앞으로 그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 예로 보건대 지난날의 문화적·정치적 질서는 앞으로의 동아시아적 질서를 구성하는 데 필수조건일 수는 없다. 월남이 현실의 필요에 따라 또 앞으로 지향에 맞추어 동남아에 속하듯, 동아시아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에 맞추어 미래의 질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날의 역사적 경험의 공유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질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앞으로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는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과제가 아니지만, 지난 날의 역사 경험의 분

석을 통해 평등한, 그것도 형식상의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평등한 관계라야 한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다) 현대의 컴퓨터는 컴퓨터와 파일 캐비닛 사이의 유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컴퓨터는 그것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파일을 보관하는 캐비닛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컴퓨터는 기계이지 가구가 아니다. 파일 캐비닛이라는 은유가 우리를 붙잡아서 정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하도록 만든다. 당신이 맥이나 PC에 잔뜩 만들어서 쌓아 놓은 엄격한 파일-디렉터리 시스템은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머들을 위해 고안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여전히 매우 쓸모가 있는 시스템이지만 프로그래머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으며, 그리고 원래 일반인들에게 유용하도록 고안되지도 않았다.

당신이 만일 애완견 세 마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어라. 하지만 1만 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면 일일이 이름을 붙이느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에 이름을 붙인다는 오늘날의 생각은 정말로 터무니가 없다.

(라) 물론 엄청난 도덕적 압력도 있다.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 발전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암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암으로부터 구원해 줄 대단한 발전을 이룩하기 직전에 와 있긴 하지만 어쩌면 테러리스트들이 그 지식을 이용하여 생물공학적인 병원균을 만들어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조치에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거대한 믿음이 있다. 물론 이런 기술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나는 이와 같은 위험 시나리오를 전 문적으로 다루는 데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내 생각에 그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첫 번째 도전이다.

(마) ‘식물 인간’을 위한 안락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자신이 식물 인간이 되면, 사람다운 위엄을 지닌 채 죽겠다는 희망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안락사는 물론 고대부터 있었다. 그러나 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뒤에도 기계의 힘을 빌어서 최소한의 육체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술이 나오고 사회가 그런 기술을 쓸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자, 그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 논의의 초점은 예전의 안락사처럼 일부러 사람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기계의 힘을 빌어서 억지로 연명시키는 일을 그만두는 행위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려면, 우리는 목숨이나 의술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사회적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런 성찰은 어렵고, 시민들이 그런 성찰의 결과에 대해 합의하기는 더욱 어렵다.

2.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1) 통합 교과형 논술로의 전환과 기본방향

인하대학교 논술시험은 문과·이과 공통 문항, 개별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공통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학습한 정도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번 모의시험은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시간과의 경쟁』(민두기),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존 브룩만 엮음),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서』(복거일) 등에서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한 5개의 제시문으로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준의 난이도를 넘어지지 않는 문장을 발췌하여 학생들이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논술시험 문제는 1) 제시문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2)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추론을 통해 이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3) 이를 토대로 제시문을 비판하고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 주제 분석과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저, 김택현 역 / 까치출판사 / 91-2쪽)에서 발췌했다. 이 제시문은 18~19세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과학관을 지적한 부분이다. 이들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모두에 대해 일정한 탐구를 통해 불변하는 객관적 법칙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이후 과학적 결과들과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지는 상대적 성격이 밝혀지면서 비판받는다. 이 이야기가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다.

제시문 (나)는 『시간과의 경쟁』(민두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61-62쪽)의 일부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지역의 단위 개념과 지역 질서에 대한 개념이 고정된 문화적 또는 정치적 실체가 아니라 현실의 필요와 미래의 지향에 맞추어 당사자들이 정한 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편제의 질서는 항상 유동적임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그런 인식 위에서 미래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의 주체적인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수험생은 이 (나) 지문의 입장이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18~19세기 사회과학자들의 신념과 다름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존 브룩만 / 도서출판 소스 / 193-4쪽)의 일부이다. 인용 부분은 과학적 발전이 가져온 유용성은 미완결적인 유용성이며 따라서 새로운 필요성 혹은 불필요성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컴퓨터 파일을 예로 들면서 어떤 발상에 근거한 과학발전이 가져온 편리함은 다른 발상에 의해 수탈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앞의 같은 책에서 나온 글로서(271쪽) 과학의 발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일부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과학발전은 인류의 복지를 위해 멈출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서』 (복거일/228쪽)에서 발췌한 글로서 여기에서는 과학발전에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발전이 가져온 생명연장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제시문 (나),(다),(라),(마)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언급된 18~19세기 과학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제 해설

제시문 (가)에서 18~19세기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으로부터 탐구를 통해 불변하는 객관적 법칙을 확정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법칙이나 원리는 정치적 또는 문화적 실체가 아니며, 현실의 필요와 미래의 지향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제시문 (다),(라),(마)의 입장에서 보면 과학적 결과들 역시 과학이 진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수정보완되거나 결과 자체가 폐기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학적 결과 역시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이다.

4) 평가 기준

-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하고, 논리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경우, 논리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상투적이거나 정형화된 논증 과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논증 과정을 제시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시문을 활용’할 때, 제시문의 표현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제시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글 내에 적절히 변용해야 한다.

-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요구를 모두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분량 등 글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3. 답안 예시

인문계열 모의고사에 응시했던 학생들의 답안 중 5개의 답안을 예시로 뽑아 보았다. 물론 여기 제시된 답안이 완벽한 답안일 수는 없다. 고 3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아직 논지 전개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다. 그래도 여기 제시된 답안들은 논제와 제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여 나름의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답안 소개에 앞서 채점 과정 중에 지적된 학생들의 몇 가지 실수를 지적해보면,

- 첫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논술문의 형식과 관련된다. 인하대 인문계열 논술은 1,000 자 정도의 분량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논점을 분명히 한 본론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는 ‘유의사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학생들이 글의 서론에 해당하는 도입부를 길게 늘어놓아 실제 자신의 논점을 서술하는 부분이 취약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시문 파악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전제가 되는 제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시문 (가)는 18~19세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과학관’을 지적한 것으로,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모두에 대해 일정한 탐구를 통해 불변하는 객관적 법칙을 확정할 수 있다는 ‘믿음’과 관련이 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인 ‘과학발전’의 문제로 제시문을 오독함으로써 논제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세 번째로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논제에서는 제시문 (나), (다), (라), (마)의 논거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과학 발전과 관련되어 흔히 거론되는 예들(예를 들어 핵폭탄, 인간복제, 공해 등)로 자신의 논거를 삼았다. 이는 논제의 요구사항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답안 작성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상투적이고 정형화된 답안’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논술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논증 과정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논술문 작성 요령과 관련하여 피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논술이 요구하는 것은 발췌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① 학생 A

(가)에서처럼,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또 과학은 인간의 위대함의 결과로 추앙받아왔다. 그래서 버클처럼, 문명사에 과학의 보편적이고 일관된 규칙성을 적용하는 학자들도 많아졌다. 즉 과학적인 법칙성이라는 가치를 모든 영역에서 적용하려는 시도까지도 생겨날 만큼 현대에서 과학적 가치는 군림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나 과학적 사고방식을 모든 학문의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왔던 일은 잘못된 것이다. 컴퓨터가 파일 캐비닛의 은유에 빠져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류와 각 학문의 고유한 영역은 과학과는 그 근본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과학적 가치를 자꾸만 강요하는 세대는 자칫 컴퓨터와 캐비닛처럼 터무니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금까지 과학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방식도 옳지 않다. 월남이 지난날의 질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앞으로의 질서에도 적용되지는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은 필요에 맞추어 구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학이 지금까지 계속된 발전을 해 왔다고 해도, 앞으로의 상황에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미 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데도 그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전의 방식대로 과학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분명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이다.

과학은 양날의 칼이다. 유용하고 편리할수록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인간은 불이라는 절대적인 물질을 다루어 만물 위에 군림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쟁과 참사 등 대적할 만한 위험을 함께 떠안은 셈이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과학도 마찬가지다. 글 (라)에서, 의술의 발전이 테러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의술로 생물공학적인 병원균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라)처럼,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나마며 멈출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과학자 개인의 연구이기보다는 국가나 거대한 조직의 지원 아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원을 제공하는 조직에 따라 과학의 산물이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과학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찰해야 할 존재임이 분명하다. (마)에서처럼, 과학은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공의 성찰이 필요하다.

답안평가 A학생은 ‘과학적 법칙성’이 과학 이외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논제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의 논거를 삼기 위해 제시문 ‘다’의 ‘컴퓨터와 파일 캐비닛의 은유’, (나)의

‘월남의 동아시아적 질서’와의 관계 등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라)의 낙관적 견해에 대한 간략한 비판을 거쳐 제시문 (마)를 거론하며 ‘공공의 성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하는 능력이나 논리성 역시 우수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의 전반부에서 논증 없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이다’와 같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을 지나지만 논거 없이 주장부터 제시될 경우 설부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② 학생 B

인류의 역사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법칙은 일반화되어 일상생활에 적용되었으며, 현대에는 전 세계적 국가질서의 개편에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바로 그 예다. ‘아시아’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유럽 열강에 의한 지배를 받고, 가난과 질병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는 앞으로 진행될 발전적 미래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전진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모든 나라에게 성장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세계질서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과학 또한 국제협력에 의해 발전될 것이다.

물론 과학 발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기술과 기계의 발전이 많은 인간적인 것들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라는 의학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식물인간의 수명을 유지시키는 기술은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손상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식물인간을 살려 내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것은 과학 기술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컴퓨터의 정보처리 기술이, 모든 파일에 이름을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서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정보관리 기술은 과학적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인류에게 엄청난 기술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답안평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의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과는 달리 B 학생의 경우는 긍정적인 입장을 지지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과학의 발전과 그 부정성에 대한 정형화된 답을 제출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학생 B의 독창성이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반론을 제기할 때는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한 반면 자신의 입장

을 지지하기 위한 논거로는 제시문을 활용하지 못해 논증의 기반이 약하며 그 결과 '세계질서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과학 또한 국제협력에 의해 발전될 것'이라는 학생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③ 학생 C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과학 고유의 특성과 상충되는 곳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

과학의 특성인 보편성·규칙성과는 달리, 사회현상에는 불확실성·가변성과는 달리, 사회 현상에는 불확실성·가변성의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와 같은 사회 현상의 탐구에는 문제점이 있다. 사회 현상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가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항상 변화한다. (나)에서 보듯이, 월남의 국가적 위치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정치적·문화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에는 과학의 '법칙성'을 원리로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인류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치 판단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없는 과학으로부터 가치중립성을 거세시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함으로써 과학이 인간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학은 인간이 주체인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고유한 삶의 영역에 대한 침범은 인간을 과학의 수동적인 이용자로 만든다.

제시문 (마)의 안락사의 경우는 인간이 과학을 이용하는 관계가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물인간은 생명 유지를 기계에 의존하는, 인간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행동·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판단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 기계와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물학적 사망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과학의 발전이 과연 인간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과학이 적용되는 범위는 반드시 구분 지어져야 한다. 인간은 능동적인 과학의 사용자이어야 하며, 과학의 발전이 인간만의 특수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답안평가 학생 C는 과학의 '보편성, 규칙성'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특수성'을 대립항으로 삼아 과학적 법칙성이 적용될 수 없는 인간 삶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성’의 상실에 이르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제와 제시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논지를 적절하게 결합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 전개 과정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주장을 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의미 암기하고 있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④ 학생 D

과학적 발견은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귀납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연구방법은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며, 과학발전은 이런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객관적인 방법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과학발전은 낙관적이라고 제시문 (가)는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발전이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 양날의 칼처럼 과학발전은 이로운 면도 있지만, 그로 인한 문제도 있다. 제시문 (라)의 경우처럼 병원균이 생겨난다는 것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9.11테러 이후 한동안 전 세계가 탄저균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자체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이 악용된다면 그 피해는 견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것이다.

또한 과학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가치관, 도덕적·사회적 가정 등에 혼란을 준다. 식물인간을 위한 안락사도 그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현재 안락사는 살인이나, 아니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문제로 예전부터 쌓아 온 인간과 생명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된 가치관·인식들을 하나로 모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회는 두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과학발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과학발전으로 인한 기술의 향상, 생활의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대인은 과학발전으로 인한 과학기술에 의존하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발전은 중요한 문제이고, 무조건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학발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과학발전 또한 낙관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답안평가 학생 D는 제시문 (가) 요약 그리고 자신의 논평이라는 무난한 논지 전개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논거로 제시문 (라)와 (마)를 이용하면서 제시문

과 연결된 새로운 논거들을 든 것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글의 초기에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다가 글의 끝머리에서 과학발전에 대한 옹호의 입장까지 감싸 안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글을 끝맺음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자신의 견해를 ‘일관되게’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⑤ 학생 E

언젠가 우리는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며 저곳은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옆에서 작은 별에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고칠 수 없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이다. 전염병은 더 이상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놀라운 과학의 발전은 인류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대체 어디에 그 한계점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갈릴레이나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과학의 법칙 발견이 가능하고 훨씬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과학발전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주장을 편다. 제시문 (라)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과학발전의 윤리적, 사회적 갈등은 인정하지만 기술발전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발전이 가져오는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제시문 (마)에 나오는 설명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과학, 의료와 같은 분야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기 힘들다. 즉,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의 성찰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발전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분배도 문제가 크다. 다시 말해, 과학발전이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후진국 아이들이, 선진국에서는 걱정되지 않는 영양실조나 피부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발전의 편재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현실과 미래를 고려한 질서의 구축은 과학에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발전 또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제시문 (다)에 나오는 과일시스템이 결국 프로그래머를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무분별한 과학발전은 결국 과학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한계점 없는 과학발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 지금까지 이뤄온 발전으로 인한 문제도 마저 해결하지 못한 채 발전에 뒤따르는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다.

답안평가 과학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와 (라)의 제시문을 요약한 후 이에 비판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마), (나), (다)의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하여 차분하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과학발전의 불평등에 대한 나름의 지적 역시 흥미로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논지가 과학발전과 기술발전에 한정되어 있어 논제가 요구하는 측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